

순천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탄력

행안부 중앙 투자 심사 통과 2026년까지 2559억원 투입 공동주택·리조트·호텔 건립

순천시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

되며 2026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0.48㎢(14만8000평)에 총사업비 25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지역에는 공동주택 1226세대와 단독주택 484세대, 타운하우스 170세대, 리조트, 호텔 등이 건립된다. 순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편, 분양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와 시민

의 의견을 수렴해 전남도에 도시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순천은 최근 인구가 꾸준히 늘어 호남 3대 도시로 등극, 인구 3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순천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국가정원과 근접한 연향뜰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순천만 잡월드와 목재체험장, 생태문화교육원, 순천만 가든마켓 등

과 연계한 배후시설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예정구역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하는 등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설치 3개 업체 우선협상자 선정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컨테이너 세척·수리(검수)장 사업자 선정 평가 결과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사는 '컨' 부두 장치장 부속에 따른 반출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두 내 세척·수리(검수)장을 축소해 야드를 확보하는 대신 항만관련부지에 신규로 세척·수리(검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자는 공컨테이너장치장 5블록 1개 업체((주)성운), 7.5블록 2개 업체(주식회사 CTS 부산, 하모니에스엘(주)) 등이다. 이들 업체는 우선협상 및 기반 공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공사 측은 예상했다.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해 공사가 투자한 후 민간임대 형태로 추진된다. 양질의 세척·수리 서비스로 상차 시간의 5-10분 단축과 야드 혼잡도의 개선을 통한 장치능력이 연간 최대 8000TEU 증가하고 검역기간이 하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전 세계 해운-물류 대란으로 인한 항만-물류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수광양항에 대한 관심 덕분에 성공적으로 사업자 모집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자 모집을 통해 '컨' 부두 장치장 확보 및 반출입 지연 문제 해소 등 여수광양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제철소 34년만에 누적 제품 출하량 5억톤 달성

연 950만톤 차강판 생산 구축 BMW 등에 고품질 강판 공급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지용)가 34년 만에 누적 제품 출하량 5억톤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26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철강제품 수출 출하 누적 2억톤을 달성한데 이어, 내수와 수출을 합한 누적 출하 5억톤을 달성하고 최근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19일 열린 기념식에는 김지용 광양제철소장,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 이광용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장, 장한채 광양항만항운노조위원장 등 비롯한 광양제철소 및 광양시 관계자들과 광양제철소 협력사, 물류관계사 대표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일부 인원만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7년 4월 첫 쇠물을 생산했고 5월 초도 출하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누적 제품 출하량은 5억톤으로 34년 5개월만에 이뤄낸 쾌거다. 이를 길이로 환산할 경우 4430만km로, 지구 둘레를 1100여 바퀴 감을 수 있는 수준이다. 광양제철소는 '87년 연산 270만톤 규모의 1열 연공장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포스코 임직원 및 광양시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광양제철소 누적 제품 출하 5억톤 달성을 기념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들어난 이후, 5기 설비종합 준공을 거쳐 지속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해왔다. 현재는 연산 2100만톤 체제를 구축하고 단일제철소 기준 세계 1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맞춰 철강제품 출하능력 역시 1987년 근거리 소형 선박을 통해 일본·중국 등지로 수출을 시작한 이래 최근 리뉴얼 투자까지 진행해 총 15개 선석·연간 2300만 톤의 출하능력을 갖추고, 내수 및 수출 출하 누적 5억톤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특히 광양제철소는 세계 최고이자 최대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성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현재까지 연간 950만톤의 자동차강판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폭스바겐·포드·BMW·도요타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회사에 고품질·고강도 자동차강판을 공급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김지용 소장은 "철강제품 출하 5억톤 달성이라는 대기록은 광양제철소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관계자 모두의 협업과 노고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공장으로 발돋움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지난 4월부터 '투게더 위드 포스코(Together With POSCO)'를 적극 실현 중이다. 수출 배선 계획프로세스 전산화로 '생산-출하'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 선적비를 39%까지 저감하는 동시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백신 1차 접종률 80% 백신접종 인센티브 조례 제정

보성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18세 이상) 1차 접종률이 지난 25일 기준 80.1%(2만 9024명)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2차 접종 완료자도 50.6%(1만 8351명)를 넘어 집단 면역 형성에 성큼 다가갔다. 75세 이상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률은 92.8%, 94.8%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18-49세 청장년층은 잔여 백신 등을 활용, 48%가 1차 접종 이상을 완료한 상태다. 보성군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정부 목표치인 70%보다 높은 80% 달성을 자체 목표로 정하고 백신접종 초기 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왔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 지난 7월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1인당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백신접종 버스 운영, 어르신 백신접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백신 접종에 참여해 준 지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신속한 백신 접종만이 4차 대유행을 끊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구회남 할머니와 그가 쓴 시.

'나가고 싶다' 코로나 답답함 시로 표현 했어요

곡성군 오산면 구회남 할머니 전국 성인문해시화전 특별상

'이후 답답해/ 책가방 속 공책들이 꿈틀꿈틀/ 어휴 허리아/ 책 속에 책받침은 부스럭부스럭/ 어휴 깔깔해/ 필통 속 연필들이 달그락달그락...(중략) 지금쯤 책상은 뭘 하고 있을까/ 나가고 싶다' 한글을 뒤늦게 배운 곡성군 할머니가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곡성군 오산면 안평리 구회남(79) 할머니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해교실을 나갈 수 없어 답답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졌으면 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학용품에 빚어내 그대로 시로 읊었다. 구 할머니는 이 시로 2021년도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곡성군은 2006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학습 기회를 놓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성인문해교육을 실시, 고령의 학습자들은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우고 시화도 그리며 새로운 세

상을 만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학습 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문해교육을 위해 교육자료 개발, 방송 문해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국 성인문화 시화전도 그중 하나다. 지난 6월 곡성군에서는 20명의 성인문해 학습자들이 시화 작품을 제출했다. 작품들은 군, 시도, 교육부 심사와 대국민 투표라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구 할머니가 특별상(국회 교육위원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회남 할머니는 "이웃들과 문해교육 가서 웃고 떠들며 수업 들을 때가 그림이다"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시 마을회관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